



## 世界養鷄產業動向 (9)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78년도 세계가금학회가 개최되었던 브라질및 82년도 제17차 세계가금학회가 개최될 폴란드의 양계산업을 소개하고 소련을 비롯한 불가리아 등 동구권의 양계산업 현황을 소개한다.

### 소 련

모스크바 주재 미국대사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농업분야의 세계유명회사 초빙세미나를 소련의 농업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1978년봄 양계분야에 관한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네델란드의 세계적인 양계회사 비그다추만(Big Dutchman)의 업무관리 지배인과 판매책임자를 초빙하였는데, 이때에는 다른 분야의 세미나에서 볼수 없었던 소련당국의 관심을 보여 소련 농무성차관, 사료생산, 식육생산의 최고 정부 책임자, 상공부의 수출입관계 책임자, 농업분야 연구소의 책임자, 양계 생산회사들의 지도자 그리고 양계부분에 관여하는 학자등 110명이 참가하여 연린 토론과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비그다추만의 발표는 주로 값싼 단백질원

으로서 계란과 닭고기의 공급에 관한 것이었는데 모든 청취자들에게 유익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세미나로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며 또 1977년 1월 백러시아 공화국의 정부 고위 지도자들이 비그다추만회사를 방문하여 비그다추만에서 이용되는 기술적인 양계정보를 얻기 위하여 계사시설이나 농장등의 세부적인 곳까지 시찰한 후 2번째 비그다추만과 소련 지도자들의 접촉으로 소련의 양계산업이 정책적인 개혁으로 큰 변화가 곧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널리 불러 일으키고 있다.

### 폴란드

제17차 세계가금학회(1982년)를 개최할 동구권의 폴란드의 양계 현황을 살펴보면 폴란드 정부에서 설정한 1976년부터 1980년까지 양계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서

닭고기 생산량을 1976년에는 1975년에 비하여 15% 증가하였고 1977년에는 1976년에 비하여 14% 증가한 32,900 TON 으로 1970년 이래로 연간 10%의 증가율을 보여온 것 보다 크게 향상 시킨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계란생산은 1975년까지만 하드라도 산란계 사육수수의 감소로 매년 감소되어 왔는데 1977년에는 1976년의 80억개 생산에서 81억 2천만개의 생산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 하였는데 이러한 계란생산의 증가는 정부가 년초에 계란가격을 고시하여 전체 폴란드의 계란생산량의 99%를 구매하여주기 때문에 산란계의 사육농가가 증가한 것이었다.

1976년에는 부분적인 종계와 종란의 수입제한이 있었고 1977년에는 양계생산물의 수입은 물론이고 종란과 종계의 수입도 더욱 제한하였으며 또 닭고기 수출량도 1976년에 비하여 1977년에 13%나 줄어든

1,000Ton으로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소매를 조장하고 있다. 1975년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6.6kg 1976년에 7.9kg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쇠고기 돼지고기등 적육(赤肉)의 공급부족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국내의 가공생산물 소비를 원칙으로 한 양계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재를 엿볼수가 있는 것이다.

1976년말 통계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수수는 7,920만수, Broiler 사육수수는 1억 5,590만 수로 나타났으며 5개년계획 동안 1,280억Z(폴란드 화폐)의 자금이 양계산업의 현대화와 품종 개발을 중점으로 하여 사용되고 1977년에 400개소의 자동화된 계사를 설치하였으며 5개년계획이 끝나고 1980년에는 950개소의 시범양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근대화된 산란계 농장에서 1978년에는 9억개의 계란이 생산될 것이며 또 15개소의 대규모농장에서는 각 농장이 15만수의 산란계

를 사육하여 연간 15억개의 계란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돼지고기의 공급부족으로 그리고 양계발전 5개년 계획으로 폴란드의 양계산업 전망을 규모의 확장과 경영의 합리화, 능력이 우수한 닭의 개량으로 계속발전되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양계생산물의 수요가 적었던 양상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 불가리아

연간 1억수 이상의 닭을 사육하며, 국민 1인당 년 14kg정도의 닭고기를 소비하는 불가리아에서는 1975년에 전체 닭고기 생산량 115,000TON중 Broiler 고기는 72,000TON이었는데 이 Broiler의 사육은 대규모의 집약화된 14개소의 농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란계는 13개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1,780만수로서 18억 4천만개의 계란을 연간 생산하고 있다. Broiler 14개농장 산란계 13개농장에서 100만수 이상의 닭을 사육하는 불가리아의 양계산업은 1980년에 Broiler

사육수수를 1억 5천만으로 늘리어 유럽 '중동' 소련등 닭고기 공급이 부족한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좀더 집약적인 Broiler 생산을 위하여 1M<sup>2</sup>의 면적당 최대의 닭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현재 1M<sup>2</sup> 당 90kg의 Broiler를 생산하고 있으며 1980년에는 빠타리사육으로 더 많은 층(層)을 이용하여 1M<sup>2</sup> 당 120~130kg의 닭고기 생산으로 Broiler 1kg생산에 소요되는 자본을 줄이는데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브라질

1977년에 계속된 남부 브라질의 가뭄으로 인하여 양계사료의 주 원료인 콩과 옥

수수의 흉작으로 양계사업에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1976년에 이룩했던 33%의 브로일러 생산 증가율을 1977에 14.5%의 증가율 밖에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7년도 총 브로일러 생산량은 691,000 TON으로서 수출량은 32,829 ton 이었으며 1978년 수출은 40,000 TON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반적인 브로일러 생산량이 줄어들었지만 수출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브로일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콩과 옥수수의 생산에 지원을 강력히 하고있으며 국내의 닭고기 가격도 1977년 3월에 kg당 89¢에서 1978년 3월에는 1,08\$로서 계속 오르고 있다. 앞으로 가뭄으로 인한 타격으로 비싼 사료가격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더욱 높은 브로일러 생산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동산유국을 대상으로 한 닭고기의 수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거대적인 양계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76년부터 1977년 말까지 중동산유국들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닭고기 수출량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부라질의 닭고기 수출량(1976 - 1977)

수출국	1976	1977
쿠웨이트	10,253	16,441
사우디아라비아	1,338	3,883
아랍에미리트	3,161	5,926
이란	2,232	0
이라크	0	2,200
오만	446	895
리비아	0	1,200
일본	956	213
나이지리아	30	1,150
시리아	1,120	0
기타	100	921
전체	19,636	32,829

젊음과 땀과 신용으로

봉사해드립니다.

# 동두천가축약품상사

취급품목

- \*가축예방약
- \*치료제
- \*소독약
- \*사료첨가제
- \*기타국내외약품

정왕모·안영숙

전화(동두천) 2704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 2리 698